

문헌번역 | Translation

그림을 통해서 본 메시카(mexica)인의 역사

* 해제

『그림을 통해서 본 메시카인의 역사』(Historia de los mexicanos por sus pinturas)는 에스파냐의 아스테카 정복 직후인 1530년대에 작성되었다. 저자는 명확하지 않은데, 프란체스코 교단의 안드레스 데 올모스(Andrés de Olmos) 수사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문헌을 작성하면서 저자가 참고한 고문서가 실전된 지금, 아스테카인의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 문헌은 작성 당시 멕시코에서 고위 성직자로 근무한 세바스티안 라미레스 데 푸엔레알(Sebastián Ramírez de Fuenleal, 1490-1547)이 에스파냐로 가져갔으며, 1891년 호아킨 가르시아 이카스발세타(Joaquín García Icazbalceta)가 발굴하여 ‘그림을 통해서 본 메시카 사람들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처음 출판하였다.

책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저자는 원주민이 남겨놓은 여러 ‘그림’, 즉 고문서를 참고하여 에스파냐어로 풀어놓았다. 총 2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천지창조, 인간창조, 태양신화, 메시카 족의 유랑과 테노치티틀란 정착이다.

그 가운데 태양신화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모두 5번에 걸쳐 태양이 창조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 태양은 물속에 빠져 사라졌고, 두 번째 태양은 바람에 휩쓸려갔으며, 세 번째 태양은 불비로 파괴되었고, 네 번째 태양은 홍수로 몰락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태양은 신이 아들을 희생시켜 만들었으므로 인간의 심장과 피를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양신화는 상세한 부분에서는 다른 태양신화와 차이가 있지만 기본 구성은 유사하다.

여기에 소개한 번역은 1장부터 9장까지이다. 원문의 어휘가 매우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장을 보완하지 않고 원문을 충실하게 옮기려고 노력하였다.

참고문헌

- Garibay, Angel María(2005). *Teogonía e historia de los mexicanos : tres opúsculos del siglo XVI*. México D.F.: Editorial Porrúa.
- Garza, Mercedes de la(1983), “Análisis comparativo de la Historia de los mexicanos por sus pinturas y la Leyenda de los soles”, *Estudios de Cultura Náhuatl*, 16, pp. 123-134.
- INAH, “Información Tlaltecútlī”.
http://www.inah.gob.mx/images/stories/Materiales_consulta/infografia/tlaltecuhkli_infografia_web.pdf
- León-Portilla, Miguel(1959). *La filosofía nahuatl, estudiada en sus fuentes*. México D.F.: UNAM.
- León-Portilla, Miguel(1999). "Ometeotl, el supremo dios dual, y Tezcatlipoca "Dios Principal"". en *Estudios de Cultura Náhuatl*. vol. 30. pp. 133-152.
- Phillips, Jr., Henry(1884), “Notes upon the Codex Ramirez, with a Translation of the Same Author(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Vol. 21, No. 116. pp. 616-651.

제1장 세계 창조와 최초의 신들

1. 메시카 사람들이 사용하는 글자와¹⁾ 문헌을 보면, 기독교를 믿지 않던 시대에 사제와 교황을 지낸 사람들과 옛사람들이 남긴 보고서를 보면, 법을 배우고 또 법을 시행하도록 신전에서 교육받은 지배자계급과 귀족의 말을 들어보면,

2. 한눈에 봐도 오래되고 대다수는 인간의 피가 묻어있는 그 사람들의 책과 그림을 내 앞에 쌓아놓았는데,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3. 한 신이 있었는데, 토나카테옥틀리(Tonacateuctli)라고²⁾ 불렀다. 이

1) 그림문자를 의미한다.

2) 현재는 토나카테옥틀리(Tonacateuctli)보다는 토나카테쿠틀리(Tonacatecuhtli)라고 표기하는 예가 많다. 여타의 여러 문헌을 보면, 최고의 신은 이중적인 속성을 지닌 오메테오틀

신의 아내는 토나카시우아틀(Tonacacihuatl), 다른 이름으로는 카체케카틀(Cachequecatl)이라고 불렸다. 두 신은 스스로를 창조했으며, 항상 제13천(天)³⁾ 머물렀다. 제13천의 시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오로지 창조되었다는 것, 거기 있다는 것, 그리고 제13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뿐이다.

4. 이 남신과 여신은 네 명의 자식을 낳았다.

5. 장자는 붉은 테스카틀리포카(Tlatlahqui Tezcatlipuca)라고 불렸다.⁴⁾ 우에호친코(Huexotzinco) 사람들과 틀라스칼라(Tlaxcala) 사람들은 이 신을 주신으로 모셨고, 카마스틀레(Camaxtle)라고 불렸다. 이 신은 태어날 때 온통 붉은색이었다.

6. 둘째 아들은 검은 테스칼리포카(Yayauhqui Tezcatlipoca)라고 불렸다. 이 아들이 가장 크고 성격도 나빴으며, 다른 세 아들을 제압하고 장악했다. 넷 중에서 중간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는 검은색이었다.

7. 셋째 아들은 케찰코아틀(Quetzalcoatl)이라고 불렸다. 다른 이름은 요우아이 에에카틀(Yohualli Ehecatl)이다.

8. 넷째이자 막내 아들은 오미테쿠틀리(Omitecutli)라고 불렸다. 다른

(Ometeotl)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아스테카의 신화는 정보가 없다. 오직 여러 판본이 있을 뿐이다.

3) 메시카인, 즉 아스테카인은 하늘이 13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다. 제1천은 달과 구름이 지나다니는 월천(月天), 제2천은 별이 지나다니는 성천(星天), 제3천은 오후의 태양이 머무는 숙천(宿天), 제4천은 태양이 지나다니는 일천(日天), 제5천은 구멍이 뚫려있어서 혜성과 떠돌이별이 지나다니는 공천(孔天), 제6천은 밤이 머무는 현천(玄天), 제7천은 태양이 새벽에 얼굴을 내미는 청천(青天), 제8천은 죽음이 신이 머무는 도천(刀天), 제9천은 케찰코아틀처럼 하얀색의 신이 거주하는 백천(白天), 제10천은 노란색의 태양신이 거주하는 황천(黃天), 제11천은 불의 신이 거주하는 적천(赤天), 제12천은 창조신이 거주하는 신천(神天), 제13천은 모든 신과 우주의 기원이 되는 쌍둥이 신이 거주하는 쌍천(雙天)이다.

4) 원문에는 테스카틀리푸카(Tezcatlipuca)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현재는 테스카틀리포카(Tezcatlipoca)로 적는다.



검은 테스칼리포카
출처: 보르지아 고문서(Codex Borgia)

이름으로는 마키스코아틀(Maquizcoatl)인데, 메시카 사람들은 우이칠로포치틀리(Huitzilopochtli)라고 불렀다.⁵⁾ 왼손잡이였기 때문이다.⁶⁾ 이 신을 메시카 사람들은 주신으로 모셨다. 고향에서부터 주신으로 모셨기 때문이고,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전쟁의 신이었기 때문이다.

9. 토나카테옥틀리(Tonacateuctli)과 토나카시우아틀(Tonacacihuatl)의 네 자식 가운데 테스칼리포카는 모든 생각을 알고 있었고, 모든 곳에 있었으며, 모든 마음을 읽었다. 그래서 모요코야[니]라고 불렀다. 이 말은 전능하다는 뜻이다. 즉,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만물을 만든다는 뜻이다.

10. 또 이름이 이러하므로, 이 신은 공기처럼 그릴 수밖에 없었다.⁷⁾

- 5) 우이칠로포치틀리는 메시카족 고유의 신이며, 탄생 신화도 본문과는 다르게, 어머니 배를 찢고 나와서 형제들을 죽였다고 전한다. 다른 신화에 따르면, 이 자리는 파란 테스카틀리포카이다. 그런데 메시카족이 전성기 때 종족의 최고 신인 우이칠로포치틀리로 대체했다.
6) 일설에 따르면, 우이칠로포치틀리는 ‘왼손잡이 별새’라는 뜻이라고 한다.
7)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11. 동생 우이칠로포치틀리는 메시카 사람들의 신인데, 태어날 때 살은 없고 뼈뿐이었다. 이렇게 600년을 살았다. 이 기간에 신들은, 아버지나 자식들이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의 그림에는 600년이라는 기간 외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20을 의미하는 기호로 20년씩 600년을 센다.

12. 이 신들은 이런 이름 외에도 다른 이름이 많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즉 어떤 속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다.

13. 그리고 종족마다 다른 이름을 붙였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제2장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고, 누가 창조했는가

14. 토나카테옥틀리에게서 4형제가 태어나고 600년이 흘렀을 때, 4형제가 모여서 해야 할 일과 다스릴 법을 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15. 모두들 케찰코아틀과 우이칠로포치틀리에게 그 일을 맡겼다. 나머지 두 형제의 판단과 의견이 그러하였기 때문이다.

16. 두 신이 불을 만들었다.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반쯤 만들어서 완전하지 못했다. 눈부시게 빛나지 않고 흐릿했다.

17. 다음으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만들었다. 남자는 우수무코(Uxumuco)라고 불렀고, 여자는 시팍토날(Cipactonal)이라고 불렀다. 두 사람에게 땅을 일구라고 명했다. 또 여자에게는 실을 짓고 베를 짜라고 명했

다.

18. 이 두 사람에게서 많은 마세우알(macehual)이 태어났다. 쉬지도 못하고 항상 일만하는 사람들이다.

19. 그리고 신들은 여자에게 옥수수 몇 알을 주었다. 치료도 하고, 점을 치고 수술을 행하라고 준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자들은 이렇게 사용한다.

20. 이어 나날을 만들고, 달로 나누었다. 한 달은 20일이고, 1년은 18개월, 360일인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다.

21. 므틀란테쿠틀리(Mictlantecutli)와 므테카시우아틀(Mictecacihuatl)도 창조했다. 이들은 부부였다. 또 지옥의 신이었으므로 지옥에 두었다.

22. 그 다음에는 제13천 이외의 여러 하늘을 창조했다. 물도 만들고, 그곳에다 시팍틀리(Cipactli)라고 부르는 큰 물고기를 만들었는데, 악어처럼 생겼다.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물고기로 땅을 만들었다.

23. 물의 남신과 여신을 창조하려고 모인 네 신은 틀랄테쿠틀리(Tlaltecutli)와 부인 찰치우틀리쿠에(Chalchiuhtlicue)를 만들었다. 물의 신으로 창조한 것이다. 메시카 사람들은 물이 필요할 때 이 신들에게 빌었다.

24. 물의 신에 관해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집에 방이 4개 있다고 한다. 중앙에 큰 정원이 있는데, 이곳에 거대한 물통 4개가 있다. 하나는 매우 좋은 물로, 이 물통에서 비가 내리면 모든 빵과⁸⁾ 씨앗이 잘 자라고, 풍년이 든다. 다른 물통은 물이 나빠서, 이곳에서 비가 내리면 빵에 거미

8) 원주민에게는 ‘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16세기에 이 문헌을 편찬한 사람이 원주민 문화를 에스파냐 문화의 맥락에서 해석했다는 증거인데, 이후에도 ‘멕시코시티’, ‘누에바 에스파냐’ 등 이런 유형의 단어를 볼 수 있다.

줄이 생기고, 작물이 시든다. 또 다른 물통에서 비가 내리면 얼음이 떨어지며, 나머지 물통에서 비가 내리면 열매가 안 맺히고 말라붙는다.



2006년 대신전에서 발굴된 틀랄테쿨리(Tlaltecutili)
출처:

<http://www.revistamilmesetas.com/tlaltecutili-la-nueva-diosa-en-el-templo-mayor>

25. 이 물의 신은 비를 내리는데 이용하려고 몸집이 작은 심부름꾼을 많이 만들었다. 심부름꾼들은 앞서 언급한 집의 4방에 기거하며, 양손에 물통에서 물을 담은 단지와⁹⁾ 막대기를 들고 있다. 비의 신이 물을 얼마동안 주고오너라고 명령하면 심부름꾼들은 단지와 막대기를 들고나가서 명령 받은 대로 물을 준다. 천둥은 이들이 막대기로 단지를 깨뜨리는 소리이고, 번개는 단지 안에 들어있던 것 또는 단지의 일부분이다.

26. 80년에 찰코의 지배자는 데리고 있던 곱사등이를 물의 신 심부름꾼들에게 희생물로 바치려고 화산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이 화산은 매우 높고 항상 눈이 쌓여 있으며, 이 멕시코시티로부터 15레구아¹⁰⁾ 떨어진 곳에 있다. 찰코 지배자의 명을 받은 하인들은 곱사등이를 동굴에 넣고 문을 봉해버렸다. 곱사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정신이 몽롱해졌다. 그리고 어느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앞서 말한 궁전을 보았고,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여 대접하는 것을 보았다. 나중에 찰코 지배자의 하인들이 죽었는지 살펴보려고 왔다. 그런데 살아 있어서 데리고 갔다. 곱사등이는 자기가 본 바를 얘기했다.

27. 이 해, 찰코 사람들은 메시카 사람들에게 패해서 노예가 되었다.

9) 저금통처럼 사방이 막혀 있고 위에 조그만 구멍이 있는 용기를 말한다.

10) 레구아는 길이의 단위로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4~7킬로미터에 이른다. 16세기 에스파냐에서 육상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던 1레구아는 약 5.6킬로미터이다.

그 일[곱사등이의 일]이 패배의 징조였다고 전한다.

29. 그 후, 네 신이 함께 모여서 물고기 시팍틀리(Cipactli)로 땅을 만들었다. 그 땅을 틀랄테쿠틀리(Tlaltecutili)라고 불렀다. 물고기로 만들었으므로 그림에서는 물고기를 덮고 있는 땅의 신으로 그린다.¹¹⁾

제3장 태양의 창조. 얼마나 많은 태양이 있었으며, 각 태양은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각 태양 때 마세구알이 먹은 것과 거인에 대한 이야기

30. 위에서 언급한 것은 모두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는데, 햇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얘기한다.

31. 이런 일이 시작될 무렵, 이미 얘기한 바 있는 최초의 남자와 여자에게서 남자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필친테쿠틀리(Piltzintecutili)였다. 결혼할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들은 소치케찰(Xochiquetzal)의 머리털로 여자를 만들어주었다. 이 여자와 처음으로 결혼했다.

32.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네 신은 창조한 반 태양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나머지 반쪽을 만들어서 땅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자고 말했다.

33. 이를 본 테스카틀리포카는 자신이 태양이 되어 땅을 비추었다. 메시카 사람들도 태양을 우리처럼 그린다. 전하는 얘기로, 우리가 보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태양의 광채이다. 태양은 아침에 나와서 한낮까지 길을 가고,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 다음날 또 나온다. 한낮부터 석양까지 보이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태양의 광채이며, 밤에는 나다니지를 알아서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테스카틀리포카는 신에서 태양이 되었다.

11) 2006년 10월 멕시코시티의 대신전(Templo mayor)에서 가로 3.62미터, 세로 4.19미터, 무게 12.35톤에 달하는 틀랄테쿠틀리 석조 부조상이 발굴되었다. 본문에서는 남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현대 고고학자들은 여신이라고 밝혀냈다.

34. 그리고 네 신이 모여서 거인들을 창조했다. 무척이나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라서 맨손으로 나무를 뽑을 정도였다. 음식은 참나무 도토리 밖에 먹지 않았다. 이 거인들은 이 태양이 지속된 만큼 살았는데, 52년이 13번이었으므로, 676년이었다.

제4장 연도를 계산하는 방법

35. 이 첫 태양부터 연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수를 나타내는 그림은 이 태양부터 계속 앞으로 나가고, 신들이 태어나고 우이칠로포치틀리가 살 없이 뼈로만 태어난 600년은, 앞서 말했듯이, 제쳐놓는다. 연도를 세는 순서와 방법을 얘기하면 이렇다.

36. 앞서 얘기했듯이, 한 해는 360일이다. 매달 20일씩 18달이 있다. 여기서 남는 5일은 축제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전과 그 행사를 언급할 때 말하겠다.

37. 이미 말했듯이, 해(年)는 4개씩 센다. 메시카 사람들의 언어도, 그림에서도 4년까지만 센다.

38. 첫 해는 텍파틀(tecpatl)이라고 부른다. 돌이나 부싯돌 그림으로 나타낸다. 이런 돌이나 부싯돌로 몸을 갈라서 심장을 꺼냈다. 둘째 해는 카이(calli)라고 부르는데, 집 그림으로 나타낸다. 집을 이렇게 부르기 때문이다. 셋째 해는 토치틀리(tochtli)라고 부른다. 토끼 머리 그림으로 나타낸다. 토끼를 토치틀리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넷째 해는 아카틀(acatl)이라고 부른다. 물에서 자라는 갈대 그림으로 나타낸다.

39. 이러한 네 명칭과 그림으로 센다. 그리하여 13에 이르면, 시작한 해로 돌아가므로 중요한 해로 간주한다. 로마인들의 15년 주기나 5년 주

기와¹²⁾ 같다. 4곱하기 13, 즉 4년 단위가 13번이므로 52년이 된다. 이 52년을 가리켜 ‘시대’라고 불렀다.

40. 52년이 되면 매우 엄숙한 의식을 올리며, 이 해를 ‘대년’(大年)이라고 불렀다. 이 시대는 과거로 돌리고, 다시 4년씩 헤아리기 시작했다.

41. 이 해는 엄숙하고 또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므로 메스카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모든 불을 꺼트렸으며, 사제들은 새 불을 얻기 위해서 이스타팔라파(Iztapalapa) 근처에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멕시코시티에서 2레구아 거리의 그곳 신전에서 이 제전을 열었다.

42. 이렇게 이 해부터 계속해서 모든 일을 4년씩 계산한다. 4년이 13번 지나면 52년이 된다. 그리고 52년씩 모든 해를 계산한다.

43. 여기서 테스카틀리포카가 태양이던 시절에 창조된 거인들 얘기로 돌아가면, 테스카틀리포카가 태양에서 물러난 뒤로 몰살되었다고 전한다. 호랑이가¹³⁾ 거인들을 죽여서 먹어버렸다. 그리하여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 호랑이는 다음과 같이 창조되었다.

44. 52년이 13번 지났을 때는 케찰코아틀이 태양이었다. 테스카틀리포카는 태양에서 물러났다. 케찰코아틀이 거대한 지팡이로 가격하여 물에 빠뜨려버렸기 때문이다. 테스카틀리포카는 물속에서 호랑이로 변하여 거인들을 죽이려고 물 밖으로 나왔다. 이 일은 하늘에도 나타나있다. 큰곰이 물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 큰곰이 테스카틀리포카이며, 저 높은 곳에 그 기억이 남아있다고 전한다.

45. 이 시기에 마세우알들은 솔방울을 먹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먹

12) 로마에서는 15년마다 재산을 재평가하여 세금을 매겼으며, 5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13) 16세기 에스파냐 사람들은 재규어를 가리켜 호랑이라고 불렀다.

지 않았다.

46. 케찰코아틀은 52년의 13번 동안 태양이었다. 676년이다. 테스카틀리포카는 신이므로 형제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했다. 호랑이가 되어서 케찰코아틀을 걷어차버렸다. 쓰러진 케찰코아틀은 태양에서 물러났다. 거대한 바람이 일어나 케찰코아틀을 데려갔다. 마세우알도 모두 데려갔는데, 공기 중에 남아있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수컷 원숭이와 암컷 원숭이가 되었다.

47. 지옥의 신 틀라토카테욱틀리(Tlatocatecutli)가 태양이 되었다. 이 태양은 52년이 7번 지나가는 동안 존속했다. 364년이다. 이 기간에 마세우알들은 아시신틀리만 먹었다. 씨앗은 밀처럼 생겼고, 물에서 자란다.

48. 이 시기가 끝났을 때, 케찰코아틀은 하늘에서 불비를 내렸다. 틀라토카테욱틀리에게 태양 자리를 빼앗아서 이 신의 아내 찰치우틀리쿠에(Chalchiuhtlicue)에게 넘겨주었다. 이 태양은 52년씩 6번 태양이었다. 312년이다. 이 기간에 마세우알들은 옥수수 비슷한 씨앗을 먹었다. 신코코피라고 부르는 씨앗이다.

49. 이렇게 신들이 탄생한 이후 이 태양이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계산하면 2,628년이다.

제5장 홍수, 하늘의 붕괴와 재건

50. 앞서 얘기한 찰치우틀리쿠에가 태양이던 마지막 해에는 비가 억수로 퍼부어 사방에 홍수가 났고, 하늘이 무너져내렸다. 마세우알도 모두 물에 떠내려가, 지금 있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가 되었다. 이리하여 마세우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하늘도 없어졌다. 땅 위로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51. 네 신은 하늘이 땅 위로 내려앉은 것을 보았는데, 그 때가 4년의 첫 해였다. 이후, 태양도 없어지고, 비가 무척 내렸다. 이 해가 [4년의 세 번째 해인] 토치틀리였다. 네 신은 땅 중심을 지나는 네 길을 만들었다. 그 길로 들어가서 하늘을 세우려는 것이었다.

52. 그 일을 도와줄 사람으로 남자 네 명을 창조했다. 한 사람은 쿠아테목이었고, 다른 사람은 이치코아틀(Itzcoatl)이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이치말리(Itzmali)였고, 또 다른 사람은 테네수치틀이었다.

53. 이 네 남자를 만든 후, 두 신 테스카틀리포카와 케찰코아틀은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 테스카틀리포카는 테스카쿠아우이틀이라고 부르는 나무가 되었다. 이 말은 ‘거울 나무’라는 뜻이다. 케찰코아틀은 케찰우에소틀이라고 부르는 나무가 되었다. 신들은 남자와 나무로 별이 박혀 있는 하늘을 들어올렸다. 그 하늘이 지금의 하늘이다.

54. 이렇게 하늘을 들어올렸기 때문에, 아버지 토나카테쿠틀리는 이들을 하늘과 별의 지배자로 삼았다.

55. 다시 세운 하늘을 테스카틀리포카와 케찰코아틀이 지나다니면서 길을 만들었다. 하늘에 그 길이 보이는데, 그 길에서 두 신은 만나고, 그 후 지금까지 그 길에 있으며, 그 길에 거처하고 있다.

제6장 하늘과 별이 복원된 다음에 일어난 일

56. 하늘을 들어올린 다음에 신들은 땅에 생명을 주었다. 하늘이 무너질 때,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57. 홍수가 나고 둘째 해, 즉 아카틀이었을 때, 테스카틀리포카는 이름

을 버리고, 미스코아틀(Mixcoatl)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 말은 ‘구름의 뱀’이라는 뜻이다.

58. 그래서 이 신을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뱀으로 그린다.

59. 이 해, [미스코아틀은] 신들에게 바치는 제전을 열고자, 여느 때처럼 막대기에서 빛을 꺼냈다. 이것이 부싯돌로 불을 만든 시초였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막대기가 곧 부싯돌이었다. 이렇게 불을 꺼낸 다음부터 제전은 큰 불을 많이 만드는 행사가 되었다.

60. 불을 꺼낸 이 둘째 해부터 여섯째 해가 될 때까지 주목할 만한 일은 없었다. 홍수가 나고 여섯째 해에 신테우틀이 태어났다. 최초의 인간 가운데 장남인 필친테쿠틀리의 아들이었다. 필친테쿠틀리는 신이었고 아내도, 앞서 얘기했듯이, 여신의 머리털로 만든 신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다.

61. 그로부터 2년 뒤, 즉 홍수가 나고 여덟째 해에 신들은 많은 마세우알을 창조했다. 전에 있던 마세우알과 같았다. 열셋째 해가 다 지나가도록 다른 일은 그려놓은 것이 없다.

62. 첫 번째 13년이 지나고 두 번째 13년의 첫 해였다. 전해오는 얘기로, 네 신이 모두 모여서 왜 땅이 밝지 않고 어둡냐고 말했다. 그리고 땅을 밝게 하려면 불과 빛을 만드는 수밖에 없으므로 땅을 밝힐 태양을 만드는데, 이 태양은 심장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켜야 하며, 전쟁에서 심장과 피를 얻게 하자고 말했다.

63. 모든 신의 뜻이 그러하였으므로, 두 번째 13년의 첫 해, 그러니까 홍수 후 14년에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은 2년 동안 지속되다가 끝났다. 셋째 해에 또 전쟁을 일으켰다.

64. 이 때 테스카틀리포카는 남자 400명과 여자 5명을 만들었다. 태양이 먹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4년밖에 살지 못하고, 다섯 여자는 살아남았다.

65. 이 두 번째 13년의 열째 해에 필친테쿠틀리의 첫 아내 수치케찰이 전쟁에서 죽었다. 전쟁에서 죽은 첫 여자였다. 그리고 전쟁에서 죽은 수많은 여자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여자였다.

제7장 태양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66. 두 번째 13년의 열셋째 해, 즉 홍수가 일어난 지 26년이 되던 해에 신들은 태양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 태양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전쟁을 일으켰다. 케찰코아틀은 자기 아들을 태양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이 아들의 아버지는 케찰코아틀이지만 어머니는 없었다. 물의 신 틀랄로카테쿠틀리 또한 자기와 아내, 즉 달(月)인 찰치우틀리쿠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태양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67. 이를 위해 두 아들은 ○일¹⁴⁾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았으며, 귀에서 피를 빼냈다.

68.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와 희생을 드리고자 귀와 몸에서 피를 빼냈다.

69. 이런 일이 다 끝나자, 케찰코아틀은 아들을 집어서 거대한 불 속으로 던졌다. 그곳에서 태양이 되어 솟아나와 땅을 밝혔다.

70. 불이 꺼진 다음에 틀랄로카테쿠틀리가 와서 아들을 재에다 던졌다. 거기서 달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 달은 잿빛이고 어둡다.

14) 원문에 공백이 있다. 가리바이는 '4일'이라고 추정한다.

71. 이 13년의 마지막 해에 태양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항상 밤이었다. 달은 태양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코 태양을 따라잡지 못한다. 태양과 달은 공중으로 다니지만 결코 하늘에 도달하지 못한다.

제8장 태양과 달이 만들어진 후에 일어난 일

72. 태양이 만들어지고 1년 뒤에, 홍수 후 세 번째 13년의 첫 해에, 네신 가운데 한 신인 카마스틀레는 제8천으로 가서 남자 4명을 만들고, 딸로 여자 1명을 만들었다. 전쟁을 일으켜서 태양에게 심장과 마실 피를 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다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버렸다. 전쟁은 없었다.

73. 그 다음해, 그러니까 세 번째 13년의 둘째 해에 카마스틀레, 다른 이름으로, 미스코아틀은 지팡이를 쥐고 바위를 쳤다. 그 바위에서 치치메카 사람 400명이 나왔다. 이들이 최초의 치치메카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사람들은 오토미 족이라고 부르는데, 에스파냐어로 말하면 ‘산(山)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 땅의 거주민이었는데, 메시카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정복하고 거주하게 되었다.

74. 이 세 번째 13년의 열한째 해에 카마스틀레는 고행을 하였다. 마게이 선인장 가시로 혀와 귀에서 피를 냈다. 신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그런 곳에서 앞서 말한 가시로 피를 내는 것이 관습이다.

75. 카마스틀레가 이런 고행을 한 이유는 제8천에서 창조한 아들 네명과 딸을 내려오게 하여 치치메카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태양이 먹을 심장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76. 이 세 번째 13년의 열째 해에 아들 4명과 딸이 내려와서 나무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의 먹거리는 독수리였다.

77. 이 때, 카마스틀레는 마게이 선인장 술과 다른 여러 술을 발명했다. 치치메카 사람들도 부지런히 술을 담갔는데, 먹고 취할 줄밖에 몰랐다.

78. 이렇게 카마스틀레 자식들이 나무에 있을 때, 치치메카 사람들이 눈에 띄자 그들에게 가려고 나무에서 내려와서 치치메카 사람들을 몰살시켰다. 단지 세 명만 도망쳤다. 한 명은 시우넬이고, 또 한 명은 미미치이며, 나머지 한 명은 그들을 창조한 카마스틀레였다. 카마스틀레는 치치메카 사람이 되었다.

79. 홍수 후 네 번째 13년의 넷째 해에 하늘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머리가 둘 달린 사슴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카마스틀레는 그 사슴을 잡으라고 시켰다. 멕시코시티에서 3레구아 떨어진 쿠이틀라우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사슴을 잡아서 신처럼 대우하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은 그 말대로 하였고, 4년 동안 먹을 것으로 토끼, 뱀, 나비를 주었다.

80. 네 번째 13년의 여덟째 해에 카마스틀레는 이웃 사람들과 전쟁을 치렀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앞서 애기한 사슴을 잡아서 씹어지고 갔다. 승리하였다.

81. 다섯 번째 13년의 둘째 해에 카마스틀레 신은 많은 불을 피워 하늘에 제전을 올렸다. 홍수 후 다섯 번째 13년이 끝날 때까지 카마스틀레는 항상 전쟁을 했다. 그 전쟁으로 태양에게 먹을 것을 바쳤다.

82. 메시카 사람들의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여섯 번째 13년의 첫 해에 치치메카 사람들은 카마스틀레와 전쟁을 벌였는데, 카마스틀레가 가져온 사슴을 빼앗았다. 그 때문에 카마스틀레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83. 카마스틀레가 사슴을 잃어버린 이유는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테스카틀리포카의 친척 여자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 여자는, 예전에 남자 400명을 만들 때 함께 만든 여자 5명의 후손이었다.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생존했는데, 그 후손이다. 이 여자가 카마스틀레의 아들을 낳았는데, 세아카틀이라고 불렀다.

84. 이 열셋째 해는 소년기를 지난 세아카틀이 7년 동안 어떻게 고행했는지를 그리고 있다. 혼자 산을 돌아다니며 피를 냈다. 신들이 세아카틀을 위대한 전사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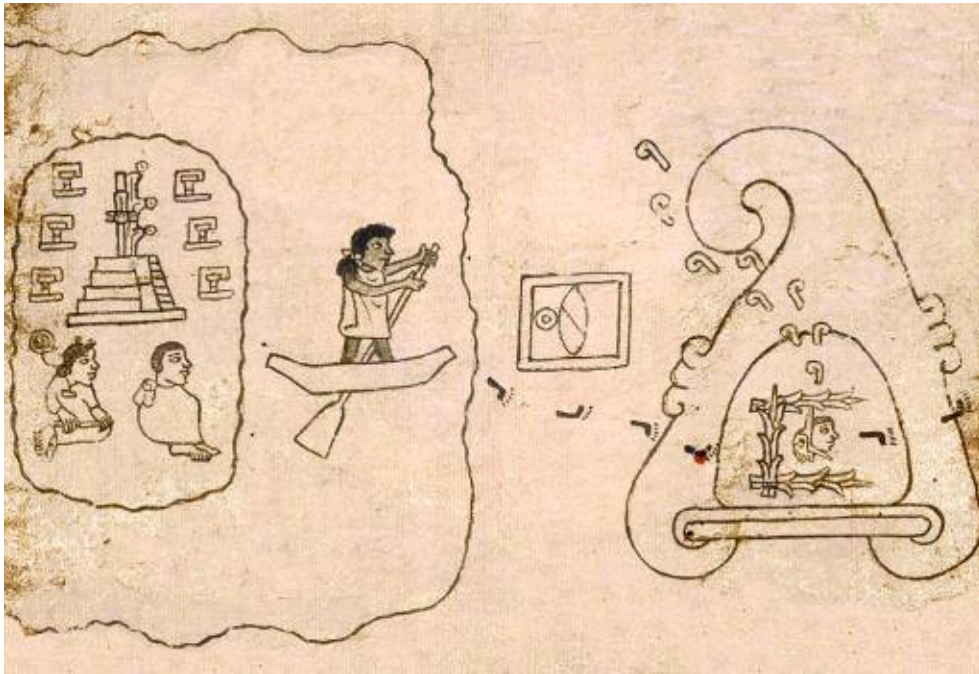
85. 홍수 후 여섯 번째 13년의 열셋째 해에 세아카틀은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틀라의 최초 지배자가 되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용감하다고 지배자로 추대했기 때문이다.

86. 이 세아카틀은 아홉 번째 13년의 둘째 해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 틀라의 지배자였다. 4년 전에 틀라에 거대한 신전을 세웠다. 신전을 세울 때 테스카틀리포카가 세아카틀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온두라스 쪽에, 지금은 틀라파야라고 부르는 곳이다, 집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곳으로 가서 머물다가 죽어야 하므로 틀라를 떠나야 하며, 그곳 사람들은 세아카틀을 신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87. 테스카틀리포카의 말을 듣고, 세아카틀은 이전에 하늘과 별도 4년 내에 그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88. 이리하여 4년이 다 지났을 때 세아카틀은 틀라의 모든 마세우알을 데리고 떠났다. 출몰라에 마세우알을 남겨두었는데, 여기서 그곳 주민이 유래했다.

89. 또 다른 사람들은 쿠스카탄 지방에 남겨놓았다. 이들의 후손이 지금 그곳에 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쉘푸알에도 남겨놓아 그곳에 사람



아스틀란(왼쪽)을 떠나 쿨우아칸(오른쪽)으로 가는 메시카인들
출처: 보투리니 고문서(Codex Boturini)

들이 살게 되었다. 세아카들은 틀라파야에 당도하였고, 그날 병으로 쓰러져 죽었다.

90. 틀라는 텅 비었다. 지배자 없이 9년이 흐른 것이다.

제9장 메시카 족이 누에바 에스파냐로 출발하다

91. 홍수 후 열 번째 13년도 다 흘러갔을 때, 즉 130년이 지났을 때, 메시카 사람들은 아스틀란이라고 부르는 한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누에바 에스파냐의 서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꺾어진다. 이곳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마을 한가운데는 산이 있었다. 이 산에서 샘이 솟아나 강을 이루고 있어서 이 멕시코시티의 차풀테펙과 유사하다. 강 건너편에는 매우 큰 마을이 또 하나 있었는데, 쿨우아칸이라고 부른다.

92. 연도 계산은 메시카 족이 고향을 떠난 첫 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해부터 시작하여 연도를 계산하겠다. 이 해 메시카 족은 정복할 땅을 찾아서 떠나기로 합의하였다.

93. 출발에 앞서 카우디요, 즉 대장 세 명을 뽑았다. 한 사람은 수이친이라고 불렀고, 다른 사람은 텍파친이라고 불렀으며, 나머지 한 사람은 쿠아틀리쿠에라고 불렀다. 이 세 명과 함께 수많은 메시카 사람들이 출발했다. 그림에는 몇 명인지 숫자가 나타나있지 않다.

94. 메시카 사람들은 상(像)을 지니고 다녔고, 신전을 건축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어디에 도착하든 우이칠로포치틀리에게 신전을 지어주려는 것이었다. 아스틀란에 있던 신전에서 작별을 고하고, 길을 떠났으므로 길을 그린 그림은 신전부터 시작된다.

[박병규 옮김]

박병규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